

##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 장학금 전달식 가져



지난 2월 24일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이사장 이보균)은 경기도 분당 소재 카길애그리퓨리나 본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장학생 42명에게 2014년 문화재단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화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국내외 축산관련 분야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축산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 이래 총 473명의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각 분야에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2014년 장학생은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12명, 대학원생 5명으로 총 9천7백만원이 42명의 인재 양성에 쓰여지게 된다.

이보균 이사장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눌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에 투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 앞으로 장학생으로 항상 비전을 가지고 성장시켜 한국 축산의 발전,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한국 축산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과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국쌈뽕(주)

### 김은정 사원, 서영민 사원 결혼 축하

한국쌈뽕(주)(대표이사 김달중)은 3월 첫 수출 선적 기념에 이어 김은정 사원(3/8), 서영민 사원(3/15)의 결혼까지 올 초부터 좋은 일만 생겨 2014년 한해를 행복하게 시작하고 있다.

김은정 사원은 지난해 입사해 마케팅부 홍보팀 디자이너로서 제품 및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서영민 사원은 2011년에 입사해 품질관리부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인재이다.

김달중 대표이사는 이달 월례회의를 통해 각 부서 및 개인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창의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한국쌈뽕을 만들 것을 임직원들과 다짐했다.

## 서부사료(주)

### 환절기 대비 고객농장 서비스 강화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는 기온의 편차가 심한 환절기 대비와 PED, 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양관리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영양을 고려한 강화사료 서비스를 실시하



는 등 발 빠른 활동을 펼쳐 고객 농장으로부터 큰 만족을 자아내고 있다.

농장 상황에 맞게 제공되는 이번 환절기 강화사료 서비스는 양계 농장과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3월 10

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간 시행된다.

농장의 환경 및 닭과 돼지의 영양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번 강화사료는 일교차에 의한 호흡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절기 기간 동안 체력 저하 및 면역력 약화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농장 담당 서부사료 FC(Farm Consultant)들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정보를 전달하여 환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부사료 사업팀 김형민 팀장은 “환절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농장별로 맞춤 활동을 강화하고 축종별로 세밀하게 체크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생산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GM 창조클럽 초청 ‘간부급 워크숍’ 개최

서부사료(주)는 지난 2월 21일 간부급을 대상으로 IGM 창조클럽(임원 전문 교육기관)을 초청해 ‘탁월한 리더십 코칭’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직장인들의 66.5%가 샐러던트(공부하는 직장인)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서부사료 구성원도 예외는 아니다. 간부급 워크숍은 탁월한 리더의 덕목을 습득하여 팀원의 육성에 대한 관심과 코칭능력을 높이고자 회사측에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이번 강연은 ‘조직 건강도 자가진단 테스트’를 시작으로 ‘탁월한 리더가 가져야 할 4가지 덕목’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리더의 참의미를 되새겨보고, 리더쉽을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미니워크숍도 진행되어 강의내용을 적용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서부사료 경영지원팀 진용선 부장은 “2014년 새롭게 적용되는 서부 HR 시스템의 정착화를 목표로 이번 강연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사료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열정을 끌어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